

■ 고사성어 ⑬



반근착절 (盤根錯節)

서린 뿌리와 얼크러진 마디라는 뜻으로, 얼크러져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의 비유.
후한(後漢) 6대 황제인 안제(安帝:106-125)때의 일이다. 안제가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모후(母后)인 태후(太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고 태후의 오빠인 등갈(鄧騭)이 대장군이 되어 병권을 장악했다.
그 무렵, 서북 변경은 티베트계(氐) 유목민족인 강족(羌族)의 침략이 잦았

다. 그러나 등갈은 국비 부족을 이유로 양주(涼州:감숙성)를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자 낭중(郎中) 벼슬에 있는 우허(虞詡)가 반대하고 나섰다.
“함곡관(函谷關)의 서쪽은 장군을 내고 동쪽은 재상을 낸다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양주는 많은 열사와 무인을 배출한 곳인데 그런 땅을 강족에게 내준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입니다.”
중신들도 모두 우허와 뜻을 같이했다. 이때부터 우허를 미워하는 등갈은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김교공파 34세 -의탁-
·개인전4회,초대그림전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때마침 조가현(朝歌縣:안휘성 내)의 현령이 비적(匪賊)에게 살해되자 우허를 추임으로 정하고 비적 토벌을 명했다. 친구들이 모여 격정했으나 우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서린 뿌리와 얼크러진 마디[盤根錯節]’에 부딪쳐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갑날의 예리함을 알 수 있겠는가.”
현지에 도착한 우허는 우선 전과자들을 모아 적진에 침투시킨 다음 갖가지 계책으로 비적을 토벌했다고 한다.

특히 정무재결(政務裁決)에 있어서의 신속적확(迅速的確)한에는 그 어느 재상(宰相:大臣)도 요송을 따르지 못했는데 당시 황문감(黃門監:환관 감독부서의 으뜸 벼슬)인 노회신(盧懷慎)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회신은 청렴 결백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으나 휴가중인 요송의 직무를 10여일간 대행할 때 요송처럼 신속히 재결하지 못하므로 해서 정무를 크게 정체시키고 말았다. 이 때 자신이 요송에게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체휼한 노회신은 이후 매사를 요송하게 상의한 다음에야 처리하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회신을 가리켜 ‘자리만 차지하고 화식이나 하는 무능한 대신(佞食宰相)’이라고 냉평(冷評)했다.



반식재상 (佞食宰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재상(대신)을 비꼬아 이르는 말.
당나라 6대 황제인 현종(玄宗)을 도와 당대 최성기(唐代 最盛期)인 ‘개원(開元)의 치(治)’을 연 대신은 요송(姚崇)이었다.
개원 2년(713), 현종이 망국의 근원인 사치를 추방하기 위해 문무백관의 호사스런 비단 관복을 정전(正殿) 앞

에 쌓아 놓고 불사른 일을 비롯, 조세와 부역을 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형벌 제도를 바로잡아 억울한 죄인을 없애고, 농병(農兵)제도를 모병(募兵)제도로 고친 것도 모두 요송의 진언에 따른 개혁이었다.
이처럼 요송은 백성들의 안녕을 꾀하는 일이 곧 나라 번영의 지름길이라 믿고 늘 이 원칙을 관철하는데 힘썼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⑧

동백나무(冬栢)

▣ 靑南 權寧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에 보석보다 더 곱고 아름다운 장감을 일깨워 줍니다.
눈 속에 피는, 피보다도 더 진한, 동백꽃이 지기 전에 파도 소리 출렁이는 오통도에 가서, 그 정열의 꽃을 구

경했으면 좋으련만, 생활이 우리를 얹어 매기에 화분에 핀 동백꽃이라도 보고, 이 한 송이 동백 속에 무한한 자연의 뜻을 읽을가 합니다.
동백꽃에는 애절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포악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에게는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세자로 삼아야 할 터인데도 욕심 많은 왕은 아무에게도 왕 자리를 물려 주지 않고 천년 만년 자기 혼자 왕 노릇을 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동생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동생은 이 일을 알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몰래 딴 곳에 숨겨두고, 양자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동생집에 달려가서 양자 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동생이 진짜 아들을 몰래 숨겨 두었다는 말을 듣고, 기어이 아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왕을 속였다는 벌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왕자는 가짜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바라는 동생은 아무 생각없이 왕이 시킨 대로, “두 왕자는 가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칼을 주며, “두 가짜 왕자를 네 손으로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칼을 받아든 동생은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만 그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피를 흘리고 죽자 두 왕자들은 두 마리 새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갔고, 그 날개 소리가 점점 커져서 천둥 소리로 변하더니,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져 궁궐은 축발이 되고 왕은 그 자리에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큰 동백나무로 변했습니다.
하늘로 날아간 두 마리 새는 다시 내려와 동백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새가 바로 동백새입니다.
동박새는 백안작(白眼雀)이라고도 하며, 등은 녹색이고 날개와 꼬지는 녹색이며 배는 흰색인 참새보다 약간 작은 새입니다.
눈의 둘레가 은백색인 것이 특색이며, 울음 소리가 아름다우며 한국, 일본 등에 분포하는 텃새로서, 산기슭이나 잡목림에 삽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나, 농경이 모든 산업과 생활의 근간이었고 자연과 더 밀착해서 살던 옛날 사람들이, 밭담의 숲 속에서 계절을 잇고 사는 현대인보다 더 봄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은 늘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조바심을 주며, 다가오는 듯하다가는 물러가고, 물러가는 듯하다가는 다시 다가와서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을 몹시 초조하게 합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동강이 풀린다는 우수, 경첩이 지나가고 파스한 바람이 불어오기에, 아! 이제 봄이구나 했더니, 웬걸! 갑자기 전국을 다시 끙끙 얼어붙게 하는 추위가 몰아치고, 폭설이 내려서 봄은 영영 오지 않을 듯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바심 속에서도 봄이 오고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겨우내 함께 봄을 기다려 오던 우리집 동백꽃망울이 터질듯 부풀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동백나무는 동남 아시아의 난대 지방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록 교목이며, 우리나라에는 남해안 지방과 남쪽 도서 지방에 자생하고 있고, 특히 오통도의 울창한 동백숲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좀더 따뜻한 일본에도 동백이 있으며, 그들도 동백을 매우 사랑하는데, 일본말로 동백을 ‘쓰바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동백의 개량 품종을 만들어서 애앓했는데 무려200여 가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의 품종은 일본에서 개량 육성한 것들입니다.
유럽으로는 약 200년 전에 건너 왔으며, 서구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1800년 후반기에는 유럽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유행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뒤마(Alexandre Dumas:프랑스의 소설가, 극작가)」의 소설 훈회에 등장함으로써 동백은 한층 더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 속에서도 타는 듯 붉게 피는 동백꽃은 모두가 좋아하는 꽃이지만, 특히 시인 묵객들은 더욱 이 꽃을 좋아해서 동백을 그림으로, 글로, 시로 나타내어 왔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원(田園)을 도연명이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근세 전원시인의 으뜸은 아무래도 신석정씨라고 생각합니

소천(笑泉) 권태호(權泰浩) 음악관 개관



소천 권태호음악관 헌판과 소천선생 입상



권태호음악관 (안동시 관광단지로 문화관광단지)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작곡가이자 성악가인 소천(笑泉) 권태호(權泰浩) 선생을 재조명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음악인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안동지역 최초의 음악관이 최근 개관하였다.
안동시 관광단지로(성곡동) 안동문화관광단지내 연 면적 1,527평방m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소천 권태호 음악관은 다목적 강당, 연습실, 전시실, 교육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천 권태호 선생은 1903년 9월 16일 안동시 법상동(법석골)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선교사 인로절(R.L.Winn)의 부인에게 다년간 서양음악을 배우고 익혔으며 안동교회에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는 20세 되던 해에 경북 청송의 윤옥선(尹玉璇)여사와 결혼하였다. 21~24세 동안 그는 일본의 도쿄에서 고학하며 한국인 최초로 니혼(日本)음악

학교에 합격하였으며 25세에 대구와 서울에서 한국인 최초의 국내 독창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당당시 독일가곡을 최초로 소개하였으며 애국가와 작곡가 안익태(당시 23세)가 찬조출연(첼로 연주)을 하였다.
그의 나이 35세까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독창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27세에 개최한 도쿄 청년회관에서 독창회는 한국인 최초의 무대로 그 무대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일본의 음악잡지에서 ‘임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평해 질 만큼 명테너로 평가 받았다.
36세에 모교 니혼음악학교의 교수로 초빙 받아 다시 도일(渡日)하였고 41세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 42~46세에 광복 이후 대구로 이주하여 ‘대구음악학원’을 개설하고 <국민가요집>을 발간하였다. 49~63세에 국민가창운동을 전개하였고 64~68세에 안동으로 귀향하여 “권태호

음악연구소”를 개설하였다. 1972년 2월 29일 그의 나이 69세에 안동시 도산면 선암리에서 영면하였다.
그가 작곡한 곡으로는 동요인 ‘봄나들이’, ‘조선아기노래’와 ‘조선아들행진곡’, ‘사향가’, ‘승리의 노래’ 등 군가를 작곡하였으며 그 외 자라나는 학생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의 꿈과 기상을 표현하고자 교가 작곡으로 대구삼척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안지, 대봉, 신암, 안동중, 대구여중, 신라중, 안동농고, 대구고, 능인고, 경명여고 등 교가, 군가, 동요를 합쳐서 114곡의 작품을 남겨 우리나라의 음악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이 음악관 김유리 공연기획실장은 “시민을 위하여 이곳에서 잦은 음악회를 열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시간안내

권경채 회장

「당신의 돈 사라지기 전에 자바라」



우리발명동우인회 회장, 공인회계사 권경채(82. 33세. 추밀공파)씨가 도서출판 영성네트워크(卍)으로 ‘돈돈돈돈 사라지기 전에 자바라’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창조경제지침서로써 발명연구가와 예비 발명연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른 “성공” 발명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려고 하는데 최대의 목적과 최고의 목표를 두었으며 발명특허 특강 및 성공사업 IDEA 개발방법을 묶어 펴냈다.
이에 저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분들

에게 이 저서가 창의력에 의한 상품 발명으로 발전해 가는데 길잡이 역할의 지침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으며 이 책을 몇 번만 정독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발명연구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또한 이 도서는 남녀 청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인생 2모작 세대에 들어선 실버세대들에게도 그동안 축적하셨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명이라는 은퇴가 없는 직업을

찾아드리는데도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권경채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발명연구에 40여년을 투신해 아이디어의 창안 및 상품화 방법에 대한 출장 강연과 인터넷신문 ‘발명과 발견뉴스’ 경영총괄고문, 공인회계사 45년간, 그리고 언제나 풍족하게 베풀 수 없었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광회에 20여년 헌신하기도 했다.
〈권오복 편집위원〉

월소(月沼) 윤태희씨

한국매죽헌(梅竹軒)서예대전 特選



윤태희(74 권태감김교공파종회장 부인)씨는 지난 10월 9일 한글날 한국매죽헌서화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매죽헌서예대전에서 특상을 수상하였다.
이 대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일한 전국대회로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많은 혁혁한 공헌을 하신 매죽헌성삼문 선생의 충절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7월 7일부터 15일 까지 전국에서 출품한 작품 중 특상을 받은 씨는 수상소감으로 “서예 15여년 수업 중 가장 큰 영광이며 이날이 있기가까지 대가(大家)인 오선영 스승의 사사를 계속 받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권범준 기자〉



이달의 詩

白頭山 天池에서



權五學
(韓民族源流問題研究所長)

보고파그리운 정심 년을 기다려서

태고의그신비를 오늘에 만나보니

파란빛하늘과天池 웃으면서맞아준다

웅장한그위용에마음이 숙연하고

광야서이는바람가슴이 서늘하며

白山의하늘 못에서새기운이 솟아난다

이제야돌아보니 지난날이 헛되어서

늦으나우리얼을 나날이 서원하니

아득한 民族源流가 어디인가생각난다.

(2014. 8. 29)